

올드앤뉴토크: 백용성편
장소: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갤러리
일시: 2016년 7월 26일
패널: 백용성, 송지은, 안대웅
녹취: 최도훈
정리: 안대웅

송지은: 먼저 <바벨디스코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백기영 선생님께서 기획하셨지만 백용성 선생님 디렉터 시절 때도 계속 진행 됐었죠. 이런 언어 학습에 대한 아이디어는 백기영 선생님께서 기획글에 쓰신 대로 『무지한 스승』에서 나온 거잖아요? 학생과 교사 사이의 학습 능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그래서 비위계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말이 나왔던 바는, 학생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교육자는 어떤 권위를 가져야 한단다는 것이었어요. 학생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저희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예술가도 자신의 아트웍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로 예술가가 분한다고 했을 때 그게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크게 다른 것인지 모르겠어요.

백용성: 그래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다르죠. 예술 경험 현장, 전시나 공연 같은 형태에 참여해야 하니까. 보통 문화예술교육이 매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건데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교육, 소위 경험으로써의 예술, 큰 틀에서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바벨 디스코스 프로그램에서 교육과 예술가, 예술가가 한 교육과 작업 사이가 크게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서 대답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벨디스코스는 일단, 컨셉추얼하게는 성공한 것 같고요. 왜냐면 역발상으로 접근한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는 쪽이 많았으니까요. 배움을 주고, 역발상, 수평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컨셉에서는 여기저기 좀 알려졌죠.

송지은: 네. 또 한편으로는 ‘좋다’는 평가와는 다르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컨셉은 명확한데 그래도 추상적인게 강한 거죠 사람들에게겐. 불가능한 공동체라고 해도 ‘체’라고 하면 형태가 존재해야 할 것 같은 거죠. 그 존재할 수 없는 ‘체’라고 하더라도 ‘체’는 있어야하지 않느냐, 라는 반응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더 시도를 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백용성: 그 불가능한 공동체는 모리스 블랑쇼의 『밝힐 수 없는 공동체』에 나와요. 개념인데, 어떤 유명한 소설가의 소설을 분석해요. 사랑이 먼저인데 뭔가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완전히 설명 안되는, 거기서 불가능한 공동체라는 용어가 나와요. 어찌면 무척 개인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주는 식의, 이상화시키자면, 암시하는 부분도 있고. 프랑스 전통에서 당시 꼬뮈니스트, 거기서 커뮤니티라고 하면 꼬뮈인인데 꼬뮈인이라는건 공산주의 느낌이 무척 강하죠. 모리스 블랑쇼 당시에 공산당에 대한 반대의식이 강했어요. 관료화되었어. 68 혁명 때 데모하다가 (공산당에) 들어간거야. 근데 공산당이 ‘학생이 여기서 이러면 안돼!’ 하면서 아주 계량화되어 버렸거든. 그래서 꼬뮈니즘에 대한 반발이 많아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면 보 존하면 좋고, 이웃관계나, 좀 낭만적이지만 그런게 있는데. 바벨디스코스는 그

런 게 개념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지나치게 개념주의에 빠진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실제 프로젝트가 실현된 것과 추구하는 관념의 간극이 크면, 안 좋게 얘기하면 말로 포장만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바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한시적으로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 완전 그 ‘체’라는 것을 유동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는 말이에요.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데에는 무슨 ‘체’라는 건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언어와 문화 문제였는데, 언어로 접근을 했잖아요? 왜냐면 언어를 모르니까, 베트남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언어 속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 있잖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마지막에 학예회마냥 해서 성과 낼 때는 재밌었잖아요? 안되는 것.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지은: 처음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어를 처음에 했었는데 언어학습의 한계점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문화적 접근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신체언어’인 거예요. 신체언어 또한 문자어와는 다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 형상에서 온 문자가 많으니까 그닥 다르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불가능한 공동체가 왜 이해가 갔던가하면 그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다보니 공공...

백용성: 커뮤니케이션인 거잖아요. 커뮤니티나 '커뮤니'가 아니고.

송지은: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불가능했던 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일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용성: 부적절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안대웅: 근데 커뮤니티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굳이 썼던 건 무슨 이유예요?

백용성: 그건 사실은, 그분한테 쥘여가지고. 내가 안 만들었거든? 그러네. 만들기,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야.

송지은: 선생님, 근데 전 사실은. 포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012년, 취임하신지 첫 해죠? 2012년에 《어스콜링: 다르게 생각하기 Earth calling: thinking otherwise》이란 이름의 국제 레지던시를 시작하시고 그 중간에 국제 아트포럼 《도시, 몸, 그리고 예술》을 여셨잖아요. 거기서 유동하는 도시, 움직이는 몸, 커뮤니티 아트에 주목하셨던 걸로 알아요.

백용성: 그래서 커뮤니티를 안 쓰고 '커뮤니'라고 했었어. 왜냐면 커뮤니티 해버리면 사람마다 이미 선입견을 가지거든. 그래서 약간 틀렸죠. 전체적으로 유동적인 면이 있잖아요? 플렉스, 커뮤니, 댄싱. 실제로 이와사부로 코소 선생이 ‘유동하는 도시와 예술’을 구축하라고 썼고,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의외로 오큐파이 운동으로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이때 코소 선생을 3-4일 전엔가 모셨는데, 너무 좋았던 경험이에요. 철학도 잘 아시고, 들뢰즈, 내가 읽

고 있던 가브리엘 까르디용 얘기를 드렸더니 오...4만원짜리 여관에 같이 잤어요. 안산에서 같이 자고.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야.

송지은: 약간 부처같이...

백용성: 그렇죠. 조형성이 아주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룹 가타리 뉴욕 대장. 나는 그룹 가타리에서 사업을 하겠다. 가타리는 펠리스 가타리라는. 아나키스트. 가타리가 액티비스트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라 보르도'라는 정신병원 의사였는데 거기서 아주 자율적 실천을 해요. 환자와 의사, 간호사 간의 유기관계를 완전히 깨서 정신분열증이라는 걸 같이 그냥 한번 확~! 이렇게 살아요. 같이 밥 먹자, 하면 먹고. 그런 비디오를 보고 싶은데 기록이 참...

안대웅: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백용성: 그래서 들뢰즈는 조금 철학자 쪽이라면 가타리는 다양한 운동을 많이 해요. 사부로 코소도 뉴욕지구 노조를 하고. 원래 도쿄에서 미술하고, 큐레이터로 잤어요. 석사를. 그 다음에 하다가 이제 바꿨죠. 액티비스트로 바뀌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일회성이긴 했지만 우리 행사도 왔었고. 뒤풀이하면서 얘기 나누고, 좋았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그때가 제가 디렉터 맡은지 첫 해잖아요? 제가 좀 미쳤던 것 같아요.(웃음) 이와사부로 코소 책을 봤는데, 괜찮아! 출판사 전화해서 이메일 알려달라고 해서 썼죠. 너 뉴욕에 있니? 나 한국에 있다. 했더니 답장이 온거야. 마침 또, 그리고 한국에서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다 줄 수는 없다.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했더니 아, 그럼 자기가 일본 갈 때쯤 시기를 맞춰서 와보겠다. 그래서 3일 있다가 일본 후쿠시마 문제 때문에 미팅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서 물론 그때 예술가의 집에서 할까 말까 고민이 있었어요. 리트머스에서 해도 좋았지만 여튼. 한번 했을 때 백여명 넘게 짹 차고. 그래서 그때 미치도록 그런 걸 하긴 했지만... 여전히 리트머스가 담론도 주도하고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좀 보람이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그 다음 이제 2013년으로 가서.

2013년은 약간 탈중심적 모양으로 잤어요. 국제레지던시는 김태덕이 매니저를 맡았어요. 신진작가 프로그램은 김태균, 이런 식으로. 저는 크게 관여는 안하는 식으로요.

송지은: 여기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포럼 같은 같아요. 13년에는 아티스트 캠프처럼 했잖아요. 예술가들한테, 그때 제가 들었던 것들이 참 기억에 남는게 환경이나 자원 관련해서 포럼도 있었고. 제 자료가 아직도 있거든요.

백용성: 전에, 아까 보셨겠지만 예술가의 우주적 감각들, 예술복지재단 지원 받아서 그때 했었어요. 요가도 하고, 인왕산인가 북한산쪽에서...

송지은: 그때 잤던 것 같아요. 조정아 선생님.

백용성: 샤머니즘 강의도 하고, 그런 걸 했었죠.

송지은: 아시아적인 것에서 샤먼적인 것으로의 어떤, 링크가 13년에 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4년도에 아시아적 샤먼으로 주제가 확장됐고요.

백용성: 김남수 선생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죠. 워낙 샤먼적이니까. 샤머니즘, 애니미즘 알아요?

송지은: 전 조금 알아요.

백용성: 그래서 《아시아예술축전》을 짜게 됐었죠. 그때면 제가 3년차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1년만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도 대표를 안하겠다해서 잠깐 하고 직업활동으로 돌아가려고...

안대웅: 2013년에는 작가 두 분께 맡겨두셨다고 했는데 외부활동은 어떤 걸 하셨던 거예요?

백용성: 13년? 13년도에는 대학 강의도 했고, 그리고 박사과정이었기 때문에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분산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때 '아트포러스art for us'도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좀 더 분산하자 그런 얘기가 좀 됐었어요. 그때 주로 태균, 태덕. 양'태' 중심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나 혼자 중심으로 가지말고, 분산해서 가자.

그런데 14년은 힘을 좀 모아야겠다 싶어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많이 관여를 했죠. (《아시아예술축전》 포스터를 보며) 이 포스터 그린 분은 주재환 선생님이신데, 이름도 이분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아시아예술축전'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하시더라고요. 초기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김월식, 조전환, 김남수...오사라 선생을 초빙했죠. 근데 오사라가 마지막에 없어서 좀 망가졌었어요. 오사라씨가 큐레이터를 맡기로 했었는데... 파리에서 오지를 않네?(웃음) 오사라씨가 왔으면 아주,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무척 힘들었어요 사실.

송지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아시아예술축전》이 전시형태보다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지향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어스쿨링》에서도 그랬듯이, 경계가 없는, 야외공간에서의 퍼뜨려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공동체의 일시적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는...

백용성: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제목도, '초감흥'으로 했어요. 곳을 생각한 거예요. 백남준도 공연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정적인 정신보다도 아시아라면 들쭉거리는, 일종의 예술의 어떤 본질을 그 양반이 본거죠. 그래서 전시를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마당에서 했죠) 어차피 여기는 언어문제도 있잖아요? 일시적 공동체도 있지만, 전시장에 와서 카~~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퍼포먼스 형식, '곳'적인 요소에는 어쨌든 어우러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알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야외를, 광장을 했고 약간씩 반영이 됐어요. 이 뒤에 무대도 세포막처럼 뒤에서도 볼 수 있고, 아주 뒤에서도 딱 막히고 이게 아니라 오픈된 구조로. 무대도 그런식으로 했고, 오방색으로 착... 해서 곱할때처럼.

안대웅: 근데 컨셉이나 초안, 제목 같은 것들은 무척 흥미로운 것 같은데 작가와 작업 완성도 면에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백용성: 주재환 선생님은 직접 참여는 안하셨고 포스터만... 후원을 많이 해주셨죠.

송지은: <이동하는 탑>도 이때 나왔던 것 같아요.

백용성: (오프닝 사진을 보면서) 이게 이제 오프닝때 안산에, 그때 새로운 사건 (세월호)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일 작가랑, 여자분이 협업으로 오픈을 했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기가 시기다 보니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오프닝은 좀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자, 하고 정했어요. 원래 안은미 선생님이로 갈까하다가 아닌 것 같다. 안은미 선생님은 두번째 아니냐고 그랬지. 근데 잘 한 것 같애. 그때 사운드로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조국을~' 빠바밤, 하고 음악이 나오면서 이게 등장을 하기 시작한거지. 신호를 쫓는데 무척 정치적인 것들이고, 국가에 대한 맹세 음악을 깔고 좌초된 배에 대한 것에 대해 애도적인 것과 비판을 동시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애. 이대일 작가가 제작한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안대웅: 저건 배를 들다가 힘들어서 못 들고 뭐 그런 건가요?

백용성: 아니, 용써서 오긴 왔어.(웃음) 이때 페스티벌의 특징은, (전체적인 조율에서는 저도 아쉬운 건 있어요. 물리적 한계, 시간의 한계. 오사라 큐레이터가 오지 못하게 되면서 벌어진 겹도 있었고, 급하게 이생강, 이대일도 좀 도와달라 하고... 방향이 좀 흐트러진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레지던시 작가들과 비레지던시 작가들 30명 가량이 함께 참가해서 만들었어요. 에드윈이라는 인도네시아 작가는 인기가 많았어요. 축제 때 무대공연만 한 게 아니라 주변 공간에 다 아기자기하게 배치를 했어요. 예술행위를 한 거죠. 포토존도 만들고. 개인 작품 보여주고, 커뮤니티 댄스도 하고... 이때 좀 아쉬웠던게 6회에 걸쳐서 김희찬 선생님 지구인의 정류장. 캄보디아 숙소에 젊은 여성들이 많잖아? 가서 워크숍을 했어. 이날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무슨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참여를 못했어. 거기랑 대학생 팀이랑 해서 나중에 뭉치기로 했었거든. 근데 캄보디아 커뮤니티가 바빠서 함께 못한 게 좀 아쉬웠어. 마사코 오노 같은 경우도 자기는 이런 경우 처음이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 이건 비트바이트 작품이고, 애는 히람 윙이라는 홍콩작가 설치작업인데 두달 넘게 개고생했어. 밤새면서. 이게 뭐냐면 안에 탱탱볼이 들어가서, 담배 피우면 동그랗게 도넛이 나오잖아? 그걸 자기 컨셉으로 잡은거야. 몽환적이면서도 툭툭, 연기가 올라가잖아. 축제에 맞을 것 같다고 자기가 말하더라고. 근데 연기가 나기는 나는데, 마지막에 문래 옥상에서 전시할 때 성공했어. 비트바이트는 표준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작업했었고. 작가 개개인마다 다 생각을 한거지. 이걸 신은경 작가의 인기품목이었던, 실제로 돈 많이 벌었고.

안대웅: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신은경 작가 작업이 작업이라기보단 그냥 아마추어 점집처럼 보이거든요? 굳이 저런 요소를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백용성: 점집이죠. 이게 일종의 페스티벌이라... 사실 실제로 오사라가 한 초기의 기획은 자기가 점집 아줌마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였어. 대학로나 가면 천으로 천막 해둔 곳 있잖아. 작업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도 축제, 행위적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시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퍼포먼티브는 있죠. 사실 나도 신은경 작가에게 물어봤어요. 페스티벌 한 달 전부터 갤러리 구석에 설치하고 (설치는 작업이죠) 거기서 캄보디아 여성 30명 정도의 점을 봤어요. 보면서 자기도, 전문번역 통역자랑 같이. 기록을 다 남겼죠. 그런 걸 뭔가 비주얼라이즈할 계획이 없냐? 점만 보고 끝이냐? 물어 봤는데. 자기는 점만 보겠대. 나도 자연스럽게 뭔가 보는 거랑 나타내는 걸 생각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건 안 된다네? 근데 신은경 작가는 정말 전문적으로 점을 보는 사람이야.

안대웅: 네 저도 들어서 알아요. 교육센터 같은 데서 진지하게 사주명리 공부했고 실제로 종종 점집으로 다른 작가 작업에 참여하시더라고요.

송지은: 15년도에도 함께 작업 하셨어요. 그때는 비주얼라이징을 하셨어요. 세월호 배너 프로젝트를 할 때 세월호 희생자 어머니들의 사주와 아이들의 사주를 풀어서 그걸로 염색을 했어요. 동물의 형태를 따서 염색하고 그걸 현수막으로 걸어두었던 거죠. 그걸로 어떤, 안산시민들이 무척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도나 사건 속에 내포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는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염색을 한 것들을 현수막으로 하면서 기운들을 생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셨어요.

안대웅: 기운을 생성한다고?

송지은: 네, 그 아이들이 뭐, 불의 기운일 수도 있고 물의 기운일 수도 있고. 사주 안에서 금의 기운, 오행으로 다섯가지 기운이 있는데 오행의 기운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현수막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점을 보고 그냥 끝나신 건 아니었어요.

백용성: 그리고 그때, 뭐 주재환 선생님도 그렇고... 축제 때는 원래 점도 보고, 술도 먹고 무대행사가 있었고 프로그램들도 있었던 거지, 에드윈도 있었고, 작가들도 왔고. 설치물들, <이동하는 탑>도 있었죠. 중심인데 집중되기보다는 조금 열린 중심에 가변적인 움직임들을...

송지은: 최선 작가님도 참여하셨어요. 사람들이 계속 불고 있어, 페인팅을.(웃음)

백용성: 그걸로 나중에 전시도 했지. 임진미 작가도.

송지은: 줄다리기 하셨죠?

백용성: 이걸 약간 즉흥적 커뮤니티죠. 바로 갤러리에서. 이것도 컨셉이 《아시아예술축전》이란 걸 맞았던 것 같아요.

송지은: 김태균 작가님이 역사 같은 것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제안을 주셨을 때 <이동하는 탑>, 인도에도 이 탑이 있는데 첫 이주여성의 결혼과 함께 넘어와서 수로왕이랑 결혼할 땐가? 바다가 너무 험난해서 못 건너오니까 탑을 실었던거죠. 결혼할 여성과 함께.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평온해져서 한국에 와서 시집혼례를 올린 뒤 탑을 경주에 세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노마딕, 이주하는, 이동하는 탑 자체가 층층이 있잖아요? 다섯 명의 작가가. 김태균 작가님 기획 안에서 각각 원곡동과 연결되는 작업들을, 즉흥적인 것도 있었고 탑이라하면 소원을 비는 어떤 것이잖아요? 유화수 같은 작가님 같은 경우엔 전등? 저 위에는 여러 소원들이 붙죠.

백용성: 둘째날, 띄우자고 했어요. 기술적 문제도 있어요. 빔이 안되서, 무척 좋은거였는데도. 아쉽죠.

(1차 휴식)

백용성: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포럼도 하고 했지만 (아시아적인 것, 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관심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리트머스, 원곡동, 리틀 아시아 느낌이 있잖아요? 아시아의 현실을, 여러 레이어가 있지만 보여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초감홍'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쿨라, 알죠? 말리노프스키가 한 말이죠. 필리핀 동쪽에 섬들이 있어요. 거기서 원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주기적으로 주변을 원으로 돌면서 교환을 해요. 쿨라는 구리로 된 장식이거든요. 하나의 리치얼한 의례죠. 그게 어떤 추장은 엄청 많고, 그런데 계속 그걸 선물식으로 돌려줘요. 계속 도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그냥 물물교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쿨라 교환은 물물교환이라는 실용적인 것이 아니야. 사회적 인식이나 종교, 명예가 교환되는거죠.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광장에서 했었고.

어쨌든 축전의 형식인 것은 초기에 시간과 공간이 지금처럼 인위적이지 않았잖아요? 구글 어스로 어디, 경도 어디어디 탁탁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는 신이 머무는 장소고 어디는 악령이 머무는 장소고. 때마다 다르잖아요? 이때는 명절이고, 시간과 공간이 무척 유니크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셜 스킨 얘기도 아까 하셨지만 현대사회는 다 평준화되어버리잖아요.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경제적 관심으로 표준화되어버리죠. 이 축전을 하면서 어쨌든, 그걸로 단순히 복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형식의 시간과 공간들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샤머니즘도 그런 맥락중 하나였고.

물론 베트남 전쟁에 꽃혀서 최근에 읽은 책에도 보면, (송대표도 최근에 다녀왔단니까 하는 얘기지만) 유교 사회적 요소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족은 집에서 모셔요. 그리고 마을에는 마을의 수호신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객사'라는 것은 무척 위기적 상황인거예요. 그분도 객사하신거잖아요? 그건 아주 불길한 거야. 자기 집에서 죽어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자의 세계로 가요. 근데 객사한 자들은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고스트의 존재를 논하는거야. 그들은 망자의 세계로도 가지 못하고, 이승에 있지도 못하는데. 이승에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책이 그 책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봐요. 나쁜 귀신, 좋은 귀신도. 연꽃귀신이라는 유명한 귀신이 있는데 어떤 가족의 딸이 있었어요. 비엔이라는 딸에 빙의가 온거야. 그래서 아빠가 물어보지. 목소리가 다르니까. '너 누구냐?'했더니, '나는 억울하다'하면서 어딘가로 막 달려가서 쓰러져. 자기 마을 밭의 어딘가에 쓰러지고 빙의가 풀려, 애는 기억도 못해. 애 애를 통해서 연꽃귀신이 계속 와요. 연꽃 있던 밭인데, 거기를 봤더니 진짜 유해가 나온거야. 그러니까 애는 전쟁 당시 고아가 되서, 양부모를 잃고 먹을거 구하려다가 연꽃밭으로 미끄러져 떨어져서 죽은 거야. 그래서 그걸 사해서 좋은데 모셔놨는데 또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를 쭉 하길래 '뭘 원하냐?'하니까 '난 어차피 고아고, 당신의 가족이 되고싶다'해. 그걸 아시아의 새로운 개념, 친족 관계라고 인류학자가 말을 해. 왜 그러냐면, 그런 객사한 타자들을 의례 행위를 통해 모셔주면서 인사이드로 받아주는 거야. 재밌는게 그 연꽃귀신은 아직까지도 가끔 와서 덕담도 해주고. 기록이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무척 재밌어. 거기서 열심히 뭘하냐면, 그런 존재들에 대한 마을 공동체가 의뢰를 통해서 받아주는 행위들인 거지. 또 그렇게 하면, 실제로 복을 얻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태우고. '돌라'라고, 달러. 돌라라는 돈이 제일 유명한데 죽은자를 위해 태우는 돈을 거기선 따로 팔아요. 비싸. 그걸 사서, 태워. 미군 죽은 귀신도 진짜 발굴해내서 모셔서 해요. 어떤 식이든 객사했지만 그 마을의 신으로까지 승격되는 경우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예술이 뭐냐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상적이거나 지루한 모양은 좀 그렇고. 《아시아예술축전》에서 했던 건, 그런 맥락을 좀 쉽게 풀어보자. 단순한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거기서 숨쉬는 새로운 대안적 요소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와 예술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었고 그런 논의와 공부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런거 하고, 여기는 그 사진은 없어요. 이건 방글라데시의 로비라는 친구가 했던 거고. 여기 올라와서, 방글라데시의 유명한 종교적 시를 읊어요.

(프레젠테이션 파일 넘기는중)

백용성: 사실 아까 앞에,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의 증식이라고 해야 하나? 관계성을 증식시키는 커뮤니티아트 얘기를 할 때. 어떤 제너럴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과 아티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으로의 순환을 형성한다. 배우면서.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앞에 얘기했지만 소수주의로서 커뮤니티아트를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고, 포럼에서 발표도 했었죠.

안대웅: 들뢰즈..소수문학...

백용성: 네, 그걸로 제가 잡았어요. 왜냐면 이게 단순한 다문화에서 커뮤니티라고 하면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라는건 이미 공동체에 있거든요.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알지만, 거대한 지배하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야. 시간적으로든 차라리 구축된 공동체라기보다 도래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약간 소수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거지. 근데 무척 창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 대 주변 구도에서 주변을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건 복지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인권제도에 관련된. 물론 그것도 정책적으로는 중요하죠. 노동자 권리라던가 약자에 대한 것들도 함께 가야하는 건 맞는데) 전 소수라는건 단순히 중심에 대한, 주변에 대한 뜻이 아니라 뭔가 가능성의 양태인데 다른 평면에서 보자는 겁니다. 거기선 뭐냐면 약간 창조적인 새로운 대안적 요소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소수적 영역,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꼭 예술영역만 있는 것은 아닌데 굳이 예술영역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티아트를 굳이 정의하라면, 지향점을 찾으려면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안대웅: 소수자 예술을 한다고 했을때... 모르겠어요. 발언 주체가 결국에 예를 들어 커뮤니티아트에서 관계맺는 이주노동자라던지, 성소수자라던가 하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 주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발화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백용성: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러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정의하긴 해요. 커뮤니티아트는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야한다. 말은 좋은 말인데. (그걸 제가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주체-되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단순히 그들이 말했다고 해서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이나? 일단 원론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데 방식의 문제, 소수적이 된다는 것은 (좀 발화와 연관해서 얘기하면) 비가시적이거나, 아까 말한 유령의 존재. 의뢰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애도적이거나 새로운 관계맺기를 한단 말이에요? 죽은자하고도. 물론 현세로 이해하는 거겠지만 그런 관계맺기를 가져가는데 상반적인 요소가 있는거죠. 위기 속에서 인간이 어떤 것을 해결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상반적인 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주체가 자기조직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나는 누가 먼저, 그건 논리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적어도 예술가가 뭔가 작업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자기조직화를 촉발해내는 (일종의 물리학에서는 오브젝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거죠. 그래야 반응들이 슈슈슈 오니까, 그걸 증폭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거?

안대웅: 소수라는 게 물리적인 소수라기보다는 개념적인,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이주를 보는, 뭐랄까. 그런 방식의...

백용성: 그러면서도 약간 지리철학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구역.

송지은: 그래서 2012년도 레지던시의 《어스쿨링》이 니체의 개념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구는 부른다, 다르게 사유하기, 그때의 개념이 구획. 영토적 구획이 아니라 지구라는 것 자체가 랜드, 땅이라고 했을 때 대지의 구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언가. 그 개념이 사실 2012년도에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히려 그게 조금씩 발전하신걸지도 모르겠어요.

백용성: 그렇죠.

안대웅: 커뮤니티아트의 존재론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용성: 맞아요. 포럼 때에 그 용어를 썼던 것 뿐이고. 예를들어 관계의 미학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물론 그 미시 커뮤니티니, 가타리 개념을 많이 끌어 오고는 있지만 이 개체로서의 사람, 개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 개체적인 촉발된 지점들이 예술가한테는 무리라고 하면서. 잡아내요 실제로. 근데 관계라고 했을때 나 주체, 너 주체, 관계, 이렇게만 오는가. 근데 원래 자연적으로는 관계가 나라는 주체를 만들고, 관계가 더 전에 있는 거거든. 그런걸 '전개체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간사에뿐만 아니라.

안대웅: 니콜라 부리오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미학을 인간 차원을 넘어서서 논휴먼non-human적인 것과 만나게 하고 싶다는 식의...?

백용성: 그걸 내가 작년 생태미학회에서 발표했어요. 리베르트 카스트로라고 브라질 인류학자랑... 브뤼노 라투어는 『자연의 정치학Politics of Nature』라고 했어요. 번역이 안되어서 불어로 보면서. 이제 라투어는 정치개념을 쓰는건데 리퍼블릭republic이 레스res, 퍼블릭public. 레스가 사물이거든. 사물은 인간, 기계, 인공지능 다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인간, 비인간 모두의 연합체로서 공화국을 만들자는 거지. 자연의 신체. 생태주의에 대한 것도 많이 끌어들이는데 근대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이론은 비판을 해. 다만 그들의 행동만큼은 상당히 좋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연합, 왜 돌고래가 죽어가는 것을 가서 막 구해내느냐, 이런 새로운 연합을 많이 하는 거고. 예를들어 이번에도 GMO 보면 노벨상 선정 과학자들이 그린피스가 GMO 반대하는 걸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라투어 같은 건 덩치의 문제야. 다 모여야 해. '반과학적이다'라고 100명이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린피스가 무척 반과학적일지는 모르지만 100명의 그 과학자들은 반정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한거지. 이 물 정치, 그건 같이 논해야하는 거라고. 왜냐면 무해하다는, 유해하다는 근거도 없다. 옛날 그 논쟁하고 비슷한데, 당연히 반론되었잖아. 그렇다고 무해하다는 근거도 없거든. 근데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는데 그린피스가 괜히 반대하고 있다. 사실 좋다. 이런 식의, 가난한 나라 도와줄 수도 있다. 정치적인 발언인데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지. 과학자면 과학적 부분만 이야기를 하던가, 근데 라투어의 얘기는 그런 존재들이 예전에는 메터오브팩트matter of fact였다면, 과학자는 사실만 다룬다고 하잖아? 근데 요새는 메터오브컨선matter of concern으로 다 바뀌었던 말이야. 팩트로 딱 오지 않아. 그래서 아직도, 광우병 문제, 무슨 분자구조로 인해서 밝혀진게, 광우병을 일으킨대 뇌에 들어가서, 흔들면서 다 썩게 만들고. 근데 그런건 과학적으로 아직 팩트로 정립이 안된거야. 몰라 정확하게. 근데 걱정거리잖아? 메터오브컨선이니까. 그런걸 같이 다 논의하는 식으로 가자는 정치가 라투어의 『자연의 정치학』에서 말하는거고.

카스트로는 다자연주의를 얘기해. 다자연주의, 멀티네이처리즘multi-naturelism, 멀티컬처럴리즘multi-culturelism.

송지은: 다자연주의와 다문화주의,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보시는 건가요?

백용성: 아니, 다른거야.

어쨌든 제가 철학베이스라.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획 했던 것 같아요. (동영상을 실행시킴.) 이게, 90분짜리 강의예요. 제가 관심가는 부분들이, 로렌스 있잖아. 그 사람이 교감의 애니미즘 국가론의 사회존재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더 공부를 많이 해야죠. 국가라면 어쨌든 흠을 파놓은 거잖아? 그러기 전의 새로운 대지 자체와 우주와의 교감을 회복하는 게 같이 가는거죠. 제3세계라고 했는데 서구중심의 까는 문학, 사고적으로만 서구중심이 아니라 제3세계는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아누말리아라는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친. 이렇게 약간 소수적인 거예요. 아누말리아의 미학.

송지은: 야생과 비슷한거 아닌가요? 야생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기 이전의 상태. 정형화된건 서구적 문화 안에서의 형식화된것을 우리 현대적 삶의 포맷이라고 본다면 야생적인 것은 사실 그러한 것들이 개입되기 이전의 그 상태, 개념이더라고요.

백용성: 그렇죠. 더 와일드. 근데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면 무언가를 발생시키는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3세계는 단순히 나뉘진, 솔직히 트리콘쪽도 보면 무조건 지역적으로 따지려고 들잖아? 근데 아프리카 작가에도 무척 미국스타일이 있고, 규정을 잘 해야한다고. 그래서 그걸 좀 전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송지은: 이게 《어스콜링》하고 무척 비슷해요. 이 레지던시 자체가 가이아, 대지의 여신의 확장된 포용력 자체가 중요했던 레지던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백용성: 그래서 난 요즘 대안공간도... 난 푸코가 아주 천재적이라고 봐. 헤테로토피아라는 짧은 책이 있는데 공간 개념으로. 들뢰즈는 시간 개념을 많이 쓰는데 푸코는 공간까지 상당히 체계적으로 사고해.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안공간이나 예술공간들마다 지향점이 있을 수는 있어. 난 헤테로토피아적이라고 봐야한다는 건데. 유토피아는 없는 공간이잖아? 이제 그건 없어. 저 낙원인거고. 근데 그냥 토피아는 여기 현실이지. 회사, 전철, 이동해서 가고, 이 짜여진 공간들인데 헤테로토피아는 굴다리에 매음굴이 있을 수도 있고, 깨는 공간. 이질적인 공간 있잖아. 예술공간도 그럴 수 있는건데, 요즘 내가 대안공간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착해. 아까 말한 아누말리아가 없어. 거칠고 야생적인, 남들은 그걸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알고보면 의외의 것, 특이한 것, 낯선 것들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숨을 쉴 수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브리딩 스페이스breathing space'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는 무척 필요한거야.

안대웅: 여담삼아 말하자면 어떤 대안공간의 경우, 멀쩡한 집을 다 헐어서 낡은 것처럼 만들고, 바닥도 뜯고 벽을, 깔끔한 집을 일부러 거칠게 만드는 거야. 그게 뭐냐면 대안공간의 거친 야생성, 각목 같은 걸 피스로 거칠게 박아서 작업하고 하죠. 그래서 뭐랄까. 소위 모더니즘의 자율적 미학에 대응해서 나오는 현상학적인 장소특정성, 인스톨레이션 아트, 소위 대안공간의 상대적으로 거친 스타일들이 이미 스테레오타입화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장소가 (거친 것을 포함해) 미학화되면서 오히려 일상과 예술이 구분이 불가능해지면서 예술 자체의 힘까

지도 사라져버린달까요? 거리로 나가보면 실제로 예술보다 파워풀한 것이 널렸어요.

백용성: 그래서 카페 같은것도 그렇게 짓잖아? 멀쩡한거 다 헐어서.

안대웅: 그렇죠. 그래서 할 포스터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아까 브리딩 스페이스와 비슷하게) 일시적인 러닝 룸을 만들어야된다고 하는데. 탈주 공간 같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러닝 룸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술의 세미오톤노미semi-autonomy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예술과 일상이 합쳐졌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시키는 것이 일종의 소개효과를 줄 수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용성: '세미semi'는 좋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안은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안은미 안무가가 할머니들을 모시고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말이죠. 했는데, 일상과 예술의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할머니들 막춤이 파리에 가서 공연도 되고. 그런데 안무가의 노력이 없으면 안되는 거거든. 안무가는 자기가 막혔을 때 야생으로 간 거지. 그리고 도대체 몸짓이 뭐냐?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서 몸짓을 요구한거야. 그래서 강원도, 충청도 돌아다녀. 음악 틀어놓고 한번 춤춰보세요. 하나 둘 기용을 해서, 그게 안무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그건 공간도 그렇고. 예술적 노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승이 있어야 돼. 돌아오더라도, 상승 없이 그냥 가면 아까 말했듯 어떤 표준화된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거지. 헤테로가 아니고, 여기서 헤테로는 이질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특히나 예술공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고원'이라는 말이 쓰이긴 했지만. 그게 중요해. 붕 떠있는, 강도 높은 어떤 것이 떠 있어야해.

맨바닥에 그냥, 우리 분리 없어요, 말하는건 멍청하고 애매해.

안대웅: 헤테로토피아라는 건, 우리가 야생성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쉽게 떠오르는 일반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차원을 제기해보고 싶어요.

백용성: 스스로의 힘을 모르는 존재, 아우톤노미automy가 있으니까.

송지은: 타자되기?

백용성: 창조적인 행위들이 되는 것 자체가, 이걸 포스트 용어로는 난벌효과라고 하는데 서양란과 말벌, 서양란은 말벌의 그 이미지를 갖추면서 말벌을 꼬셔. 그래서 자기의 수련을 다른 서양란에 가져다 붙이게해서 생식을 하거든. 그럼 식물계열과 동물계열이잖아. 이게 어떻게 만나냐고, 기묘하잖아? 그래서 다이질날 이후에 공진하는 인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 그때 나왔던 애긴데 프로스트 이노베이션을 찾아서 보면, 그런 표현을 쓰는데 무척 이질적인데 접합은 되는, 접합되는 순간 제3적인 무언가가 일어나는거지. 그게 타자되기의 원칙이고 그걸 들뢰즈가 정교하게 이접적 종합, 새로운 논리학을 만들어내지. 그래서 그런 차원들이 있는데... 예술쪽에서는 너무 식상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아. 재료 쓸때도 그렇고, 허무한 거 잘 안쓰잖아? 어쨌든 다양한 차원에서의, 그런 타자-되기라는 개념을 쓰는거지. 내가 말해주고 싶었던 건, 이것도 중요한건데, 아네스틴이라는 알터심리학자인데. 그 타자되거나

와일드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 원초적인, 힘의 흐름이 있는데 '이머전스-셀프' 단계, 그게 우리 안에도 실제로 있는 거야. 이게 기존 단계발달론자들은 지나면 없어져버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평생 간다는 거야.

안대웅: 이머전스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백용성: 출현하는 자 정도?

안대웅: 출현?

백용성: 그렇지. 그 다음에 '코어-셀프', 나오고 '서브젝트-버벌subject-verbal 셀프'. 이게 라캉이 얘기하는 3단계지. 언어를 통해서. 여기에서 모더니티가 없어. 슬픔, 기쁨, 딱딱 상태별로 끊어지지 않고 무언가가 있어요. 아네스틴 이 사람이 미학에 대한 책도 썼는데, 무언가. 딱 화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발생시키는 흐름이 계속 있다는 거야. 이런 경험의 질들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확실히 보인다는거야. 이걸 딱 연구해서 증명해냈어. 이런 걸 이 사람은 '비발티 어펙트'라고 하는데, 이게 예술을 우리가 감상할 때나 느낄 때 이게 살아나. 저게 살아날 때는 나와 너의 구분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엉켜. 그런 고양된 어펙트. 김남수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걸 '감흥의 미학'이라고 했겠지만, 실제 연구결과였어. 신비주의 같은게 아니라.

안대웅: 이게 어느 분과인가요? 교육학?

백용성: 심리학, 발달 심리학자야. 유아의 대인관계 부분을 영어로 엄청 읽었지. 발생 상태의 주체성. 포스트 모던에서 주체는 없다, 이런말 하잖아. 근데 보통 들뢰즈나 가타리가 강조하는 애벌레 주체라는 건 이런쪽이야. 우리가 아는 칸트식의 주체, 나는 동의하고. 그리고 주체가 주체적으로 의식해서 뭔가 관념을 얻고 하는 칸트식의 주체는 없다는거고. 끝없이 변하면서 셀프self를 만들어 간다는거야. 이머전스-셀프는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발생기의 자아일 수도 있고, 꿈, 망상, 창조에서 정렬, 이런데서 마구 발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있고, 아 저거 괜찮네가 아니고. 그냥 바로, 곧바로 교감이 되고. 아까 말한 꼬리표만 해도 교감이 착착착 된거지. 그런 게 가끔 있다는거야. 평생 가는 것이. 물론 어른이 되어서 점점 잊혀지긴 하지. 무의식으로. 들뢰즈의 말들이 복잡한게 아니라 이런 데도 다 있어요.

그리고 휴먼페이스, 이게 무척 중요한 개념이야. 안면성, 들뢰즈가 얘기하는 거야. 표정, 안면성.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적으로 볼때 무의식적이지만 뭔가를 느끼잖아? 그게 아니고 딱 그거, 하면서 자동으로 느끼잖아. 아래층에서 작동되는 무언가를 어펙트라고 하고, 이미 딱 상태가 되는걸 어펙션이라고 해. 스피노자 이야기인데, 변용되고 변용시키는 그 힘을 어펙트라고 하거든. 이미 변용되었으면 그건 어떤 상태지. 근데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거야. 그래서 폭발, 나오다 식고 이런. 이걸 내가 국립현대미술 강의를, 춤의 미학 할 때 쓴거야.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게 이거지. (피피티를 보며) 이게 멀티컬처럴리즘multi-culturelism의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대는, 결국 네이처nature는 물질성, 자연과학자들이 배우는 객관적 자연법칙이 통용되고, 계산가능해야하고, 계산가능

하다는 건 본질적인 거거든. 코털 뽑는게 아파, 뽀 라이터로 불지르는게 아파. 질이 다르면 비교가 안되지. 근데 동질적인 것. 가정을 한거야. 이게 분리가 된거지. 그리고 인간적인 건 컬처culture. 이걸 다문화잖아. 주관적이고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질적일 수 있고, 그런 철학적 가정을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구조예요. 오히려 여기서 자연은 단일한데 나머지는 여럿이다, 인데 여기서 단일한 어떤 게 있다는거야.

송지은: 조건으로서의 인간성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백용성: 단일한 정령 같은 것이 있고, 인간, 대지. 다 네이처nature들이라는 거야. 인간만 있는게 아니라, 원 오브 텀이라는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문화를 가질 수 있고, 개의 문화도 있고, 이게 멀티네이처리즘의 도식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식으로는 능산적 자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 범신론적이지, 모든걸 생산해내는 것인데 이걸 소산적 자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내가 간단히 번역한건데. 재밌는게 이 카스트로가, 아마존 인디언 연구를 하면서 개들의 사고방식이 다 자연주의거든? 그걸 아예 자기 인류학 철학으로 만든거야. 그래서 여기보면 인간, 비인간 종횡단적인 대화들이, 있는데 인간성 동물적인 공간이 아니라 최초의 결집 재료이거나. 모으는 재료거나 잠재적인 것으로 본래적 형태. 잠재성의 영역이라고 하지. 거기서부터 동물들은 탈인간이 돼요. 실제 신화를 봐도 그래. 태초에는 모든게 인간이 있는데, 자연의 어떤 변형으로, 어떤건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그래.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종이 다르잖아? 그게 아니라 아까 조건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거야. 이걸 조건이라고 하는거지. 종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조건으로서의 인간성이야. 종은 조건이 아니고, 조건으로서의 인간성이라는 개념은 동물 역시 하나의 인간, 본질을 숨기고 있다는거야. 그래서 샤먼은 그걸 봐야해.

안대웅: 인간성이라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백용성: 이게 약간 애니미즘적 사고라고 보면 돼.

안대웅: 그럼 굳이 인간성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는건가요?

백용성: 이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건데,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하면 휴머니즘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서. 그래서 난 오히려, 약간 애니미즘적이거나 샤머니즘적인 것, 정령이라고 보는거지. 인간도 가지고 있고 그걸. 모든 자연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써. 샤머니즘은, 특히 이 샤먼들이 그걸 본다는 거야. 그래서 종을 판단하듯이 대화하고, 미친개가 돌아다니면 딱 봐. 아, 저건 옆마을에서 어떤 원한으로 죽은 영이 들어가있다, 고 하고. 해석하면서 정체를 얘기해. 재를 잘 보내주던가 먹을걸 잘 주던가. 이런 외교화 기술을 하는거야. 그래서 이사람도 우주, 보편적 정치로서 다 잘하는거지. 이것도 아까 말한 자연의 정치랑 비슷한거야. 여기서 이제, 사실은 아트웍하고 연관이 되지. 최근에는 숲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는 책도 추천받아서 좀 보고 있는데 숲이 생각을 한다는거야. 휴머니즘만 생각할게 아니라.

안대웅: 작년에 보니까 미디어 연구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Non-Human Turn』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리처드라고 해요. 제이 볼턴? 그 사람이랑, 여러 발제자들 글을 모은 책이에요. 리처드가 서문을 쓰는데 미네소타에서 각자의 사연을 모아서 짚막히 정리했어요.

백용성: 그런 걸 한번 봐보세요. 요즘 non-human이나 post-human, 이런 것들이 무척 인기죠.

안대웅: 그것들이 근데 다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포스트 휴먼, 논휴먼, 애니멀 관련 철학들도 그렇고. 오브젝트 오리엔트 필로소피 등등

백용성: 근대사회가 이제, 이 사람도 재밌는게 하원 상원식으로 자연, 딱 분리가 된다 이분법으로. 근데 사실은, 뉴-노머그랑 다 하나가 다른거야. 이게 아까 말한 물-정치의 구상인거지. 실제로 그 사람이 물-정치로 한 전시도 있잖아.

안대웅: 이게 동양사상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백용성: 그래서 내가 아시아 이런거, 할때 동양사상도 다양하잖아? 다양한데 약간 아래쪽, 민간의 뭐. 딱 형태가 되는 유교나 이런쪽보다는, 물론 그런쪽도 깔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적인 것과 무척 비슷했지.

안대웅: 노장사상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백용성: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 책에서 비판한게 공동세계를, 당혹스러운게 나오면 논의하자, 해서 어떻게어떻게 정리할까 해서 이걸 제도화시키는 공화국 운영을 하자는 이야긴데 여기 예술가가 빠져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내가 비판을 했지. 자연의 정치, 여기서 미학. 좀 아쉬운 부분이지. 내가 생태미학할때 이런 관점에서 많이 했어.

송지은: 가타리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안대웅: 아 질문! 가타리의 트랜스버설이라는 걸 횡단성이라고도 하고, 초보편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백용성: 트랜스면 관통적인 것이니까 횡단하는거지. 아까 말한 집합 개념인데, 원래 논리학에서는 '야, 너 여자야 남자야? 게이야 이성이야?' 이양적인거에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or의 논리학이잖아? A 아니면 B인거야. 근데 란 별효과처럼, A면서 B인식의. 그걸 물어로는 수아라고하는데, 이거든 저거든 다 된다는 식이야. 실제 정신분열자에게 물어보면, 너 여자야 남자야, 난 여자기도 하고 남자기도 하다. 대답을 하는거야. 그런 모델의 영향을 받아서 분열분석을 한건데 논리적 모델이라고 하지. 그런게 약간 애니미즘적인 것도 있어요. 연결고리가.

안대웅: 근데 그 트랜스버스라고 하는게 단순히 횡단성이라는, 관통한다는 이야기만 한 것 같지는 않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같이 하기위해서 그 말을 쓴 것 같고요. 유니버스라는 말을 굳이 트랜스에 붙인건...

백용성: 요즘, 멀티버스? 다원우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글썄. 트랜스버시티, 횡단성은 아닌 것 같애.

안대웅: 횡단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백; 트랜스 유니버스가 아니가, 트랜스-버스지.

안대웅: 트랜스-버스인데 유니버스와 트랜스를 합쳐서 읽은건지... 맥락을 보면 트랜스-버스를 얘기하는게 접합된 전체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백; 그게, 기계 개념을 구조주의에서 구조 개념을 기계로 막 대체했거든. 그때 지점에서 이제 드러난다. 그걸 하면서 공동작업을 시작한거야. 기계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구조는 너무 정태적 개념이잖아. 약간 잠재적 개념이야. 상상계도 아니고 실재계도 아닌 것을 구조라고 일컫는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대웅: 상징계

백용성: 그렇지. 상징이라고도 하지. 근데 그걸 아주 독특하게 해석해. 구조주의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보면, 구조라는 말이 좀 정태적이고 역동성이 없으니까 기계라는 표현을 써요. 빼서 움직이는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리즘까지 가는거야. 리즘, 리즘이 거기서 발생된 개념이지. 그 다음 기계 개념 안쓰고 리즘이라고 쓰는데 리즘이 쪽쪽 뻗어나가면서 이질적인 것들을 묶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짹짹 접합시킨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구분된 것들을 가로지르는거니까 횡단적 요소가 있고, 여기만 하는게 아니라 전우주적인 과정들을 아우르는게 될수도 있고. 근데 가타리의 용어에서, 보통 철학에서 구분하는 개별과 보편의 논리대립을 안쓰거든. 그런 의미에서의 보편은 아니고 다 끝난다는 의미에서는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말은 어려운데, 실제적인 것의 조화.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라캉의 구분대상에서 페티시즘적 요소가 있을수도 있는데 떼어낸다는것. 추상화시킨다고 하는데 abstract를 이때는 구체적인 것과 대립되는 추상적인게 아니라 추출한다는 의미에서. 탈형태화시켜서 감각적인 것과 이타성을, 이타성은 다른것, 정도. 유사 발화효과가 나타나게 하면서 모두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변하게한다는 말들이 있어. 주체성이려면 아까 말한 어펙트 있잖아? 그걸 짹 일어나게 만들면서 나를 변화시키는거야. 나를 변화시킨다는건 어펙트 얘기거든. 아주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조금 변할 수도 있지. 우리가 좋은 영화 한편을 봐도 느끼는게 좀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주체화되는, 그런 전략이지. 네겐트로피라는 것은 에너지 이론이잖아, 열역학에서. 엔트로피의 반대. 상승작용을 하게 해준다는 얘기지. 어찌보면 뻘한 얘기야, 사실. 재밌는게 미학에서도, 근데 이제 어떤 구어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응용하고 뉘앙스, 그러니까 언어활동도 발화점에서 많이 나온다는거야. 말의 문장 내용만 따지는 건 좁은 의미로 언어학자들이 하는거고, 그때의 분위기, 표정, 말의 억양, 이런 것들을 착- 하는게 구어적인거야.

안대웅: 그래서 페미니즘이나 이런데서 요즘에 표기를 어떻게 하나면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어에선 성별명사가 있잖아요. 그런 구분을 없애고 단어 뒤에 별표나

작대기를 붙이고, 엑스를 쓰고 이런 걸 해. 근데 단어가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줄표 같은 걸 붙여서 느슨한 느낌으로 붙인다든지, 그런 걸 하더라고요.

백용성: 막주름의 세계를 그런 기호로 만드는 예시라고 볼 수도 있지. 기호의 어떤 구어성을 만드는 것일수도 있어. 딱딱 분절적인 단어들로.

안대웅: 그런것...저런 것들을...일본의 라이트노벨 있잖아요? 이상한 줄표. 우리는 줄표를 그냥 보완하는 보어의 역할로 절 같은 걸로 쓰잖아요? 라이트노벨에선 그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거야.

백용성: 사실 이렇게 서구에서는 무척 강조하는데 우리나라만해도 봐. 지금도 엄청 많은거야. 굿이나 할때, 열쑈. 하는 것도 들어가고 굿 할때 말은 하지만 이게 방언아냐. 어떤 리듬이 있잖아. 그게 우리나라, 아시아에는 풍부하게 있다고 보는거지. 분리시킬땐 분리시키고

안대웅: 인터넷 언어 같은것들도 그렇죠.

백용성: 그리고 잔혹연극, 잔혹연극을 썼는데 잔혹하다는게 존나 썰다는 얘기거든. 뽕가게 아주 낮설게 만드는거지 감정을. 그걸 멕시코 샤먼 굿하는거 보면서 구상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공연예술하는거 보고 아, 저렇게 해야겠다. 프랑스 연극은 너무 말이 많아. 말로만 하는 재현인거야.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다 말로만 하잖아. 잔혹연극은 구어성에 막 힘을 주는거야. 굿이랑 거기서 연관점을 찾지. 그러니까 역으로, 애네 서구가 막히면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가잖아. 자꾸 우리는 뻗겨, 나쁘게말하면. 실제로 <애니미즘>전도 했잖아. 박찬경 작가가 다시 일민에서 좀 더 붙여서 했지만 그때 사실 난, 이런 것들을 강조했으면. 너무 전통적인 샤머니즘적 측면만 강조한 것 같아서, 좀 분리를 시켜야되는데.

안대웅: 그 <애니미즘>은 이런 것들이 무척 유행할 때, 사실 딱 가져와서 한 건데.

백용성: 그렇긴 한데 거기 더 붙였잖아, 박찬경이. 그런 작업하는 작가가 하나 있는데, 근데 보면 작품내용이 뭐 없거든. 서구는 그런 걸 막 화두화시킨다. 어디 굿하는거 막 비디오 찍고. 그러니까 개네는 자체동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 그걸 다 흡수하려고 해. 동양적인거나, 아프리카적인거나. 우리도 암만 서양에 가봤자라는 거야. 베트남 가고 이런 작업들 아주 세계적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봐. 그것만 되면 여기도 좋은 작품이 많아. 근데 서구나 개들이 다 개념잡아서 심지어 광주에 살던 애가 짜증난 게 강정마을 비디오라고 사상범 구타한거랑 대충 찍어와서 딱- 해놓은거야. 안개를 쓴 메테우프로스인가? <애니미즘> 전시에서 참여한 작가인데, 개네가 하는건 작품이 되고 왜 우린 안되냐 이거지. 바튼도 러시아의 그, 엄청 유명한 문화평론가, 인류학자인데 쓱쓱 가져다 쓰자는 거야.

안대웅: 조금 틀어서 관객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예를 들면 클레어 비숍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긴데, 그 사람이 브레히트, 특히 브레히트의 것들을 비판

해요. 브레이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서 '너 이거 몰랐지? 낫설게 한번 당해봐'하면서 예술로 충격을 준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백용성: 그때 그 충격이, 나 국문과잖아요. 시도 썼었고, 20대때 브레이트가 엄청 유명했었는데, 거기 한계가 너무 인식론적이라는거예요. 주체를 가져가고 주체의 의식을 변화시키자는 게 막시스트잖아? 의식화시키자는 건데 아까 말한 감각의 변화를 통해서, 아까 말한 팩트의 변화를 통해서 육체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표상적 의식, 무의식적 요소가 아니라 그걸 깨자는 쪽이어서 의도는 좋은데, 좋다기보다는 용어나 시도는 좋은데 그쪽으로 수정되는 경향이 좀 있어.

안대웅: 그래서 좀 더 관객을 액티베이팅 시키는것이 뭐냐. 이런 쪽으로 정의하는 측면들이 있고.

백용성: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제4의 벽, 해서 그 벽을 깨자.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 근데 그 장치로써 낫설게하기는... 차라리 난 낫설게-되기 쪽에 가깝지. 되게 하는거. 그때 낫선 건 아까 말한 좀 기묘한 것. 그래야 감각에 충격을 받는거거든. 충격을 주고. 내시경이 직접 충격을 전하는. 사르트르는 LSD하고, 글 쓰고 그랬잖아. 그 정도까지 신경에 직접 충격을 줄 정도의 어떤걸로 가야된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지. 의식적으로 A가 B라고 생각했는데 C구나! 의식에서만, 인식적으로만 변화를 주는건 너무 약하다는거지. 그건 약간 깨닫게 하는거지. 야, 재 부르주아야! 우리 노동자 계급이야. 하고 인식하게 해주는 건데, 결론은 약하다는 거지.

(잡담 중)

안대웅: 제가 최근에 콘트라섹슈얼리티,라는 것들을 읽고 있는데, 여자 페미니스트가 어떤식으로 하나면 테스토스테론, 겔, 알약 같은걸 먹어. 15일 정도 먹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 성욕이 강해지고 뭔가 남자처럼 되어가는거지.

백용성: 아, 호르몬이네. 남성호르몬.

안대웅: 네, 그걸 맞는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통해 뭔가 자기가 성별이 다시 변하는 것? 남성적인 것도 아니고 약간 트랜스가 된거지. 그러면서 실험하는 것들을 일기처럼 쓰는데 흥미롭더라고요. 약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게.

백용성: 주변에 한 분이 있어요. 약간 트랜스인데. 교수야, 회화과. 작가는 아니죠. 근데 자기가 여자가 되는걸 좋아해. 호르몬도 맞고.

안대웅: 트랜스젠더예요?

백용성: 아니, 수술은 안 했지. 자기 딸, 와이프 다 있어. 근데 여성복장을 다 갖춰서. 성적 취향은 내가 안 물어봤어, 같이 술을 마셨는데. 무성애? 재밌더라고. 그런것도 일종의 타자되기 연습이지. 이 분야야.

송지은: 어머, 너무 예쁘다.

백용성: 키가 180이야. 운동 엄청 열심히해. 맨날 막걸리 먹어.

송지은: 여자 모델?

백용성: 남자야.

송지은: 제스처나 포즈가 무척...

백용성: 처음에는 조금 여성적으로 갔다가, 지금은 완전 이렇게 변했어. 집에서 다 인정 해주나봐.

송지은: 영국에 그레이스 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여장을 하고 다녀요. 그런 케이스죠.

백용성: 그것도 일종이고 예를 들어서, 요셉 보이즈도 토끼나 동물되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 혹은 백남준의 샤먼되기니. 진짜 굿하고, 센 척 하잖아? 그랬을 때 그게 화-하고 일어나는게 있지. ...콘트라-섹슈얼리티?

안대웅: 매니페스토가 있어요.

백용성: 마니페스토야?

안대웅: 매니페스토해서 자기가 서명도 하고...

백용성: 근데 콘트라라는건 섹슈얼리티에 반대한다는, 반-성적 이런거 아닌가?

안대웅: 그쵸. 자기한테 부여된...

백용성: 안티, 대항하는, 안티는 반대고, 약간 저항하는거고.

안대웅: 콘트라라는 싸운다는거죠, 이제.

백용성: 대적하는 식으로.

안대웅: 그래서 이런 것도 해요.

백용성: 콘트라-사이언스도 나오네. 어떤 몸과 쾌락의 규범적인 상상에 저항하는...

안대웅: 그러니까 몸 자체를 아예 덜도로 만들자는거야. 그래서 온몸에서 그런 것들을 기계화시키는, 남성-여성으로 느끼는게 아니라 사물의 쾌락적 부분들을 하자는... 그런건데.

백용성: 페미니스트중에도 있잖아. 재미있다. 여자가 하는거지.

안대웅: 여자 생긴것도 보여드릴게요. 약간 희안하게 생겼어요.

송지은: 호르몬 약을 많이 맞아서 그런가?

안대웅: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소개가 잘 안됐어요.

백용성: 아까 그 교수 소개시켜줘야겠네.(웃음)

송지은: 한국에 소개가 안되어서 영상 찾기가 힘드네요.

백용성: (영어 프로필 읽는중) 만나봐야겠다 한번.

안대웅: 이 사람이 보니까 미술에서도, e-flux 같은데서 두개 정도 번역을 했는데 젠더 정치학에서 무척 급진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용성: 자크 데리다랑 아그네스가 멘토가 되었었구나. 음, 볼게 나중에. 재밌겠다. 환각 후 포르노그래피네. 캐피탈리즘이네.

안대웅: 피임약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백용성: 약물 포르노 잡음주의라고 불리는 것에 의해서 몸이 정치화되는 현상을 깬다는 얘기잖아.

안대웅: 피임약이라는게, 여성의 인권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얘길 하잖아. 한편으로 이런걸 통해서 섹스평론 같은 것들 얘기를 막 해. 성적인 것들을 상품화시키는 거나... 약을 통해서 몸을 다시 급진화시키는거야.

백용성: 아티스트는 아니네?

송지은: 그래도 재밌네요.

백용성: 이것 좀 뽑아, 슬슬 가자.

(끝)